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즐기는 휴양... 4개국 아침을 크루즈에서

해외 여행을 떠난다면 공항을 먼저 떠나는 사람이 많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고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다.

크루즈 여행은 한 번 이용하게 되면 몇 번이나 다시 찾는 이들이 많다. 경험자들은 크루즈 여행의 묘미는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닌 선내에서 공연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1석 3조가 가능하다고 크루즈 여행의 장점을 말한다. 이외에도 크루즈는 여러 여행지를 여행하면서도 짐을 싸고 풀어 정리하는 수고도 덜 수 있으며, 잠을 자는 동안 이동해 아침에는 다른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전세선 크루즈는 나날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롯데관광은 한·일 크루즈부터 한·러·일, 한·중·일까지 매년 다양한 일정을 제공해 4만명 이상의 관광객에게 색다른 크루즈 여행을 제공했다. 롯데관광은 오는 10월에 한·러·일 크루즈와 한·중·러·일 크루즈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관광의 크루즈 여행은 각 지역의 인기있는 여행지를 연결해 크루즈 여행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롯데관광 크루즈가 방문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다.

러시아 대표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에 위치한 도시다. 부동항이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며, 아시아에서 느낄 수 없는 유럽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다. 지명은 '동방을 지배하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는 명칭의 의미처럼 러시아 등 연안의 최대 군항지이며, 러시아의 전진기지로 태평양 극동함대 요새, 혁명광장 등 러시아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점인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이 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동일 한국의 기차여행의 대목거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토크 혁명광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의 생활의 쉼터가 될 수 있다. 주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주말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이 여는 재래시장이 열린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건물에서는 동유럽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포크로프스키 주교좌 성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큰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이색적인 외관이 이목을 끈다. 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구 아르바트 거리를 본떠 만든 신 아르바트 거리가 있다. 신 아르바트 거리에는 젊은

롯데관광 '코스타세레나호' 크루즈 상품 출시... 11만급 4800명 탑승 국내 최대 10월 8일 인천 출발 '한·중·러·일' 7박8일... 15일 속초 출발 '한·러·일' 5박6일 선상카테일·요가·댄스파티 등 부대시설·프로그램 다채... 선예약시 40만원 할인

러시아 예술가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다. 독수리 전망대는 블라디보스토크 전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여행객의 필수 포토존으로 인기있다. 독수리 전망대와 더불어 벨 마르 전망포인트에서도 금교와 부동항을 볼 수 있는데 주변이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 하버는 해안을 따라 오락시설을 갖춘 곳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빛과 음악 분수를 운영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동해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면 루스키섬으로 갈 수 있다. 루스키섬에는 프리모리 수족관과 극동국립대학캠퍼스가 유명하다. 루스키섬 프리모리 수족관에서는 돌고래쇼가 인기있는데,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돌고래쇼를 볼 수 있다. 단, 월요일과 수요일은 휴관한다. 극동국립대학캠퍼스는 동해를 바라보는 해변을 즐길 수 있다. 극동국립대학교는 우리나라와 인연도 깊은데, 1995년에 한국학을 설립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꼭 방문해야 할 도시 중 한 곳인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세계적인 도시인 상해다. 상해는 일찍이 국제도시로 중국의 문물 개방 창구 역할을 해왔던 곳으로 황푸강을 기준으로 푸둥과 푸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푸둥 지역은 박물관, 도서관, 대극장 등 현대적인 시설들이 있으며, 상해의 랜드마크인 둥강 납작한 동방명주 TV 및 라디오 타워가 위치해 상해의 미래를 상징한다. 푸시의 번드 리버사이드 지구는 옛 상해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푸둥과 푸시를 함께 여행하면 상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둘러볼 수 있다.

일본 기항지중에는 나가사키와 사카미미나토를 방문하는데, 나가사키는 흔히 나가사키 짬뽕으로 익숙한 항구도시다. 사카미미나토는 나가사키만큼 익숙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나가사키는 반도와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곳이며 항구도시이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나가사키 항구를 찾는다. 나가사키 항구는 항구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항구 주변에 펼쳐진 거리도 매력 있다. 나가사키 항구 거리는 역사적인 흔적과 음식,

쇼핑 등 여행객들의 구미를 당기는 매력적인 장소로 가득하다.

사카미미나토는 일본 3대 명산 중 하나인 다이센 산을 끼고 있어 '일본의 백사정승 100선'과 '일본의 물가 100선'에 선정될 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풍광을 자랑한다.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한 주택으로 가득한 사카미미나토 시 거리 곳곳에는 정겨운 일본 시골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사카미미나토는 일본 최고 인기 만화인 '계게계 키타로'의 요괴 캐릭터 동상으로 유명하며, 현재까지 153개의 캐릭터 동상이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사카미미나토 거리에 늘어선 특색 있는 상점들과 먹거리, 사카미미나토역의 요괴 열차 등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빠져드는 매력을 제공한다. 정겹고 독특한 매력을 바탕으로 연간 300만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사카미미나토를 찾고 있다.

롯데관광에서는 2019년 지난 1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일정을 선별해 4-5월에 걸쳐 3회, 오는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 총 5회의 전세 크루즈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4-5월 총 3회 성공리에 마쳤으며 광주와 전남·북 송출 인원만 약 300여명에 달하여 크루즈 여행이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롯데관광 광주지사 송출인원 확인) 특히 롯데관광 광주지사는 광주, 전남·북 고객을 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인천항·속초항과 부산항까지의 왕복 이동차량을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5월에 걸쳐 탑승하는 인원만 1만3000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엔 최초로 선보이는 한·중·러·일 4개국 일정과 3년 연속 만선의 기록을 달성한 한·러·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는 국내 크루즈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오는 10월 8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한·중·러·일 4개국 크루즈는 롯데관광의 지난 10년간의 전세선 크루즈 역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일정으로 지난 4월 개항한 인천 크루즈 터미널에서 출항해 더 의미 있는 항해가 될 예정이다. 한/중/러/일

크루즈는 인천과 중국 상해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끝으로 10월15일 속초로 들어오는 7박 8일 일정이다.

3년 연속 만선의 신화를 쓰며 크루즈 여행 대표 기업으로 성장한 롯데관광은 베스트일정으로 자리매김한 한·러·일 크루즈를 운영한다. 한·러·일 크루즈는 오는 10월 15일 속초에서 출항한다. 한·러·일 크루즈는 10월 8일 출발하는 한·러·일 크루즈 일정과 동일하게 속초에서 출항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후 일본 사카미미나토를 방문하는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에서 운항되는 크루즈 선박은 대한민국에서 출항하는 최대 규모인 11만톤급의 코스타 세레나호다. 총 탑승 인원이 승무원 포함 4800명에 달하는 코스타 세레나호는 가로 길이가 무려 290m로 63빌딩 높이인 250m보다 40m나 더 길어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한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마치 거대한 빌딩이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크루즈이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웅장한 규모만큼 부대시설 또한 다양하다. 한 번에 2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정찬 레스토랑과 뷔페 레스토랑은 까다로운 입맛의 여행객들까지 사로잡고 있으며 전일 해상에서 머무르는 날이면 정찬식당에서 코스타 크루가 진행되는 특별 공연도 열린다. 그 밖에도 매일 밤 대극장의 화려한 공연과 샴페인과 카나페를 즐기는 선상 카테일 환영회, 요가강습, 댄스파티, 폴사이드 댄스 배우기, 음식 데코레이션 이벤트 등 다양한 선내 프로그램으로 크루즈 내에서도 지루할 틈 없이 지낼 수 있다.

한편 롯데관광의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 상품가격은 1항차 10월8일 출발(7박8일) 한국-중국-러시아-일본 4개국을 항해하는 크루즈는 198만원부터 판매하며, 2항차 10월15일 출발(5박6일) 한국-러시아-일본 크루즈는 178만원부터 판매된다.

6월 14일까지 완납 시 1인 40만원이 할인 및 소아 무료 프로모션 진행중이며 8명 이상 3만원, 14명 이상 5만원, 20명 이상 10만원 등 단체 인원 별 할인 단체예약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또한 3-4인실 이용 시 소아 30만원 특가 제공, 성인 80만원 특가 제공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롯데관광 광주지사(1688-1104), 또는 롯데관광 크루즈팀 (1577-3400), 롯데관광 홈페이지(www.lottetour.com)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 국내 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2017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 상' 최초 수상!

Costa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승무원: 3,780명 · 승객: 1,100명

오늘은 유럽, 내일은 아시아
매일매일 새로운 4개국의 아침을 만나보세요

한/중/일/러 4개국의 아침을 깨우다

무료 셔틀버스 제공!
광주-인천/속초/부산 왕복수송

2018 인기크루즈 BEST 3

10/8 인천항 출발

인천항·상해·나가사키
▶ 블라디보스토크·속초항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8일

내 측 1,980,000원 ~ 발코니 2,680,000원 ~
오션뷰 2,280,000원 ~ 스위트 3,480,000원 ~

10/15 속초항 출발

속초항·블라디보스토크
▶ 사카미미나토·부산항

한/러/일 특별 전세선 6일

내 측 1,780,000원 ~ 발코니 2,480,000원 ~
오션뷰 2,080,000원 ~ 스위트 3,280,000원 ~

조기예약 이벤트

40만원 할인 + 선실 우선배정

[6월 14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 예약 최대 10만원 추가할인
8명 이상 3만원, 14명 이상 5만원, 20명 이상 10만원 할인

3/4인실 할인 **성인 80만원 / 소아 무료!**
3/4인실 이용시 3/4인실 고객 상품가

1항차 특별공연 / 가수 김성환, 전영록

2항차 특별공연 / 가수 홍서범 & 조갑경

상해

나가사키

블라디보스토크

사카미미나토

가견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구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일자리제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포함] ●여행유료 / ●여행자세 / ●항수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착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의 경우 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얼]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 인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 가능합니다. ●종로구청: 일반여행업 제4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8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00만원 가입 ●여행관리센터: 1588-8882 ●여행출발지: 부산항/속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21일 사용일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열차, 입항, 숙박권 등은 관공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